

旭硝子, 94년 순이익 호조

旭硝子の 화학제품사업부 94년 매출이 VCM과 우레탄의 판매증가에도 불구하고 3310억엔에 그쳐 93년의 3740억엔에 비해 11.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旭硝子の 경영현황 (단위 : 100만엔, %)			
구 분	1993	1994	증감률
매 출	1,227,305	1,240,897	1.1
경상이익	22,840	35,584	55.8
세전이익	20,183	32,112	59.1
순 이 익	11,012	17,409	58.1

그러나 94년에 실시한 비용절감과 기업구조 개편작업의 결과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다.

세전이익은 321억엔으로 93년대비 59% 증가했으며, 순이익은 174억엔으로 93년대비 58%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.

사업부별 실적에서는 유리와 건축재료사업부의 매출이 4470억엔으로 93년의 4560억엔에 비해 2.1% 감소했다.

세라믹사업부의 매출은 13.4% 감소했으며, 전자제품분야

는 0.7%의 미미한 성장을 했다.

한편, 旭硝子は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 전력하며,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업전략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5/4/17>